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9. 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핀란드, 테러 모의 극단주의 단체 조직원 기소

- 8.31 핀란드 검찰은 주요시설·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모의하고, 인종차별적인 무력충돌에 대비해 3D 프린터로 무기를 제조한 극단주의 단체 소속 남성 3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
- ※ 다만, 구체적인 테러 행위 준비 수준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

미주

○ 美, 멕시코를 통한 이민에 ISIS 연계 브로커 관여 수사 착수

- 8.30 언론은 美 FBI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 중 10여 명이 ISIS와 연계된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
- ※ 美 정부 당국자는 同 사건으로 테러범들이 이민행렬을 이용하여 美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우려를 표명

○ 美, 주요 도시 증오범죄 증가 추세

- 8.31 언론은 지난해 뉴욕·LA·시카고 등 미국 10대 도시에서 증오범죄가 평균 22% 증가했으며, 특히 뉴욕의 경우 증오범죄 피해자 중 아시아계 비율이 유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보도
- ※ 언론은 증오범죄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

○ 캐나다, 성소수자 자국민 대상 미국 여행 위험 경고

- 8.30 언론은 캐나다 외교부가 미국 여행정보 안내를 통해 캐나다와 달리 성소수자가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, 여행 목적지의 현지 법규를 미리 점검하도록 당부했다고 보도
- ※ 지난 5월 美 국토안보부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더욱 빈번하고 난폭해지고 있다고 경고

아 · 태평양

○ 경찰청,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

- 8.30 경찰청은 총기·화약류·도검 등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 및 강력범죄 등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,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집중단속 할 계획

※ 자진신고 기간 內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화약법(70조)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함

○ 인도,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대비 강화

- 9.5 언론은 인도가 9.9~10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공지능(AI) 기반 카메라와 연동되는 새 기술을 도입, 테러 등 범죄 용의자에 대한 얼굴 인식 정확도를 90%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

※ 인도는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시크족 분리주의 단체(SFJ)와 카슈미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테러에 대비, 특별경계 활동 중

○ 파키스탄, 대테러작전을 통해 테러범 4명 사살

- 8.30 언론은 파키스탄 경찰 대테러부(CTD)가 피신소에 있는 테러범들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자국 內 테러를 계획하고 있던 4명을 사살하였으며, 그들이 소지한 무기와 탄약도 회수하였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알샤바브 테러리스트 약150명 사살

- 9.4 언론은 소말리아군이 무두그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으로 알샤바브 대원 150여 명을 사살했으며, 이는 소말리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알카에다 연계 지하디스트 단체 대상 공세의 일환이라고 보도

※ 「세이크 모하무드」 소말리아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안정을 위한 노력의 중심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약속하고 지하디스트에 대한 공격을 강화 중

캐나다 서스캐처원주 홍기 난동사건

- '22.9.4 캐나다 서스캐처원(Saskatchewan)주의 제임스 스미스 크리네이션市와 웰던市 등 13곳에서 「샌더슨」兄弟의 무차별 홍기 공격으로 11명 사망·18명 부상



<마일즈 샌더슨>

- 사건 직후, 경찰은 서스캐처원주 전체에 지역 비상경보(Emergency Alert)를 발령하고, 인근 앨버타州와 매니토州까지 비상경보를 확대

- 동생 「마일즈 샌더슨*」(31)은 9.7 경찰에 체포되었으나, 형 「데미안 샌더슨」(32)은 사건 다음날 상처를 입고 죽은 채로 발견

* 同人은 과거 폭행, 강도, 협박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은 후 '21.8월 가석방

- 경찰 당국은 “마일즈가 형 데미안 살인을 포함한 11건의 살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”고 발표

- 한편, 캐나다 언론 및 여론은 “연방 가석방위원회의 개혁과 원주민 사회의 폭력성 해결, 정신건강 및 마약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증가”를 요구

< 외로운 늑대(Lone Wolf) >

- (정의) 정부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, 배후세력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는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라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美 극우주의자 엘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 선동 과정에서 同용어를 사용하며 ‘자생적 테러범’ 의미로 변화
- (특징) △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테러 준비·실행 △독자적인 은밀한 계획·공격으로 사전 징후포착 곤란 △주로 ‘소프트타겟’ 대상 ‘로테크’ 공격 자행